

e-book과 책의 미래

이용욱 | 한남대 국문과 겸임교수 · 문학평론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문학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만큼 정보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문학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문학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불안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불안하다'고 표현한 것은 변화의 진폭이 기왕의 지반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클 것이라는 예상만 가능할 뿐, 구체적으로 문학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작가나 비평가 집단 모두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터넷의 특성인 실시간 쌍방향 광역소통의 공간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작가와 독자의 관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혹자는 물적 토대의 변화로 인한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이미지화를 점치며, 혹자는 문자언어에서 전자언어로 창작언어가 형질을 바꿈에 따라 창작방법론이 변화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평자들의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변화의 조짐이 구체화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화사회의 문학이 자본주의사회의 문학과는 그 존재기반과 실천양상을 달리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작가/독자의 관계, 상상력과 리얼리티, 창작방법론 등은 무엇보다도 문학 텍스트를 담아내는 그릇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문학의 새로운 그릇이 바로 e-book이다.

e-book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독자에게 공급되는 새로운 개념의 책으로, 기술 의존적인 멀티 텍스트다. 가히 책의 혁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e-book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젊은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출판사의 상업전략과 출판 지면을 확대하겠다는 작가와 편리하고 저렴하게 책을 읽겠다는 독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앞으로 전개될 문학의 지각변동에 주요한 변수로 기능할 것이다.

작가 이순원씨는 8월 초 온라인 서점 예스24를 통해 국내 최초의 e-book 전작소설인 《모델》을 발표했고, 이인화 · 고원정 · 성석제씨는 골드북닷컴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거나 연재를 준비중이다. 이문열씨도 e-book으로 신작소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재봉씨는 북스포유를 통해 《기계도 오르가슴을 느낀다》 연재를 시작했다. 빠르게 그리고 폭넓게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출판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e-book이 종이책을 쇠퇴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의 영역을 분명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학의 저변 확대에 일조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출판물은 e-book에 내주는 대신 종이책은 고급화, 희소화(다품종 소량생산), 장식화 전략을 택해 고급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는 우리에게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자로 조합된 종이책만을 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술발전이 선사한 편리하고 유용한 출판도구와 그 생산물이 가져다줄 문학의 혁명적인 변화에 동참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인류가 당대의 지적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책의 운명 역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책은 어떤 외피를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유리강령 및 주간신문

유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